2021년 1월 31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The Arrest of Jesus Christ
마가복음 Mark 14:43-52

43.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came, one of the twelve, and with him a crowd with swords and club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elders.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Now the betrayer had given them a sing, saying, "The one I will kiss is the man. Seize him and lead him away under guard."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And when he came, he went up to him at once and said, "Rabbi!" And he kissed him.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And they laid hands on him and seized him.
47.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But one of those who stood by drew his sword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ear.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And Jesus said to the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Day after day I was with you in the temple teaching, and you did not seize me. But let the Scripture be fulfilled.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And they all left him and fled.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And a young man followed him, with nothing but a linen cloth about his body. And they seized him.
52. 베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But he left the linen cloth and ran away naked.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잡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잡힌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 But let the Scripture be fulfilled.
> 마가복음 Mark 14:49b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혹은 지혜가 부족하셔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And Mary said,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 누가복음 Luke 1:37-38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사랑하심"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 인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새 창조"라는 설명으로야 가능합니다.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deep.
> 창세기 Genesis 1:1

이런 창조 이전의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s of the deep.
> 창세기 1:2b

여기서 "운행하시니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카프"입니다. 라카프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구약에 꼭 두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that flutters over its young, spreading out its pinions, catching them, baring them on its pinions, the Lord alone guided him. No foreign god was with him.
> 신명기 Deuteronomy 32:11-12

여기서 "너풀거리며"(flutters)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그 두 번째요 마지막 "라카프"입니다.

창세기는 “운행하시다”로 번역했고, 신명기는 “너풀거리다”입니다. 그러나 둘 다 “라카프”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처럼 날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And when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and was praying,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 누가복음 Luke 5:21b-22

예수님 때는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가 다른 점입니다. 구약의 독수리가 신약의 비둘기로 바뀌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 비둘기는 가장 약한 새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사자”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양은 가장 약한 동물, 사자는 가장 강합니다. 어린양과 사자는 구약과 신약에 공히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 Judah is a lion’s cub. From the prey, my son, you have gone up. He stooped down. He crouched as a lion and as a lioness. Who dares rouse him?
> 창세기 Genesis 49:9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 그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유다가 유다 된 것은 그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이 절망적인 질문을 두고 요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 And one of the elders said to me, “Weep no more.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conquered, so that he can open the scroll and its seven seals.” And between the throne and the four living creature and among the elders I saw a Lamb standing, as though it had been slain, with seven horns and with seven eyes,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sent out into all the earth. And he went and took the scroll from the right hand of him who was seated on the throne.

요한계시록 Revelation 5:5-7

그 인을 떼심이란, 그 말씀의 모든 뜻을 순종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그 희생제사의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독수리-비둘기의 이미지는 “창조주”의 이미지, 어린양-사자는 “구원주”의 이미지입니다.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창조주 이미지 Image of Creator	독수리 eagle	비둘기 pigeon
구원주 이미지 Image of Savior	어린양 lamb	어린양 lamb
	사자 lion	사자 lion

예수님께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은 특이합니다. 강한 독수리가 연약한 비둘기로, 동물의 왕 사자가 겸손한 양으로.

이런 두 가지 대립하는 이미지가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은 이런 패턴 외에도 주체-객체의 변이라는 점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체 Subject	객체 Object
목양 Ministry	목자 Shepherd	문 Gate
제사 Sacrifice	대제사장 High Priest	어린양 Sheep

이런 양면성은 “성육신-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체 Subject	객체 Object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	사람
구원 Salvation	구원주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은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밝히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게 하신 그 엄청난 사건은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 사건”입니다.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 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house of Judah.
> 예레미야 Jeremiah 31:31

여기서 “새 언약” 곧 “신약”(New Testament)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로써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한 중요한 장면이 복음서가 그리는 모든 내용, 곧 “복음”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43.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came, one of the twelve, and with him a crowd with swords and club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elders.

과연 가룟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 같으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안에 있을 뿐입니다.

>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 and with him a crowd with swords and clubs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말씀의 자리에 붙들어 맨 것은 검도 몽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께서 스스로 모든 말씀을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것입니다.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Now the betrayer had given them a sing, saying, "The one I will kiss is the man. Seize him and lead him away under guard."

그는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소위 "유다의 키스"(Judah's kiss)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군호를 짜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단단히 끌어가야 할 정도로 인간의 힘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날 밤 기도로써 모든 말씀순종 과정은 끝났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실 그 때부터. 아니 근본적으로는 더 이전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And when he came, he went up to him at once and said, "Rabbi!" And he kissed him.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곧 (at once) 나아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랍비여!"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그의 배반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And they laid hands on him and seized him.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생의 그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겹쳐 떠오릅니다. 옥합을 부었던 여인들, 그리고 그

옷이라도 잡으려고 다가왔던 혈루병 여인.

이로써 우리가 아는 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배반, 탐욕과 시비로 주님께 나아온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the Son of Man! It would be better if he had not been born.
>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Matthew 26:24

그의 삶 자체가 저주가 되었습니다.

47.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But one of those who stood by drew his sword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ear.

이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평행본문은 베드로,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고쳐 낫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상세한 정보를 건너뛰고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And Jesus said to the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너희가 나를 강도와 동일시 하느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강도들"이라고 하셨던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장한 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강도처럼 다룹니다. 적반하장!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Day after day I was with you in the temple teaching, and you did not seize me. But let the Scripture be fulfilled.

그렇습니다. 성전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함께 있으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들의 흉계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해석입니다.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And they all left him and fled.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주장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과 확언이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 칼아. 목자를 치라. 그 양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And a young man followed him, with nothing but a linen cloth about his body. And they seized him.

한 청년이 보입니다. 그가 베 홑이불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52. 베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But he left the linen cloth and ran away naked.

이 젊은 청년이 누구인가? 그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목자를 치시니 양떼가 흩어졌습니다!

>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 "Awake, O sword, against my shepherd, against the man who stands next to me," declares the Lord of hosts.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 스가랴 Zechariah 13:7

양떼 중에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동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구원과 새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그로써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한분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 마태복음 Matthew 6:13b

>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 Then the seventh angel blew his trumpet,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 요한계시록 Revelation 11:15

죄로 죽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크고 큽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크신 은혜로서 죄로 물들어버린 이전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5:17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나 예수님은 참 소망이십니다.

도망한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끝까지 홀로 십자가를 지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칼에 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피를 모두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고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뵙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o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t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 히브리서 Hebrews 12:2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복음증거로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